하산 없는 제자의 알리바이

(사도행전 16:22~32)

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산 없는 제자의 알리바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산 없는 제자의 알리바이'

알리바이(alibi)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다(somewhere else)는 뜻의 본래 라틴어로써 우리말로 하면 현장부재증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의심되는 사람들이 용의자들로 지목됩니다. 이때에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범죄와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해 알리바이를 주장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사건 현장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몸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몸으로 저지르게 됩니다. 몸은 물리적으로 두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알리바이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입증을 위한 근거가 없는 알리바이라면 효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진범을 밝혀야 하는 형사나 검사는 용의자들에게 범죄가 일어난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리바이를 확증해줄 증인을 요구합니다. 그

런데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범행동기가 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유력한 용의자로 취급될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알리바이가 없다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딱히 발견되지 않았을지라도 의심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한편 오늘 제목에서는 '하산 없는 제자'라는 말을 이러한 알리바이에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제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훌륭한 랍비가 있으면 제자가 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런 보편적인 유대사회의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추종자들도 제자로 불렸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의 모든 제자는 하산을 목표로 하여 스승이 있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스승의 지혜를 배우고 능력을 전수받아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하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과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은 이별을 목표로 스승을 찾아가는 셈입니다. 이것은 나의 독립적인 완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스승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한 번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니 하산하라"는 말씀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헤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이별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는 이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육체가 떠나신 뒤에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하실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애초에 나 자신의 성숙이나 독립을 위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식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22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로 이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독립적인 인격의 완성을 꾀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보다 더 위대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자 함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철저히 종속해서 예수님을 나타나시게 함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종속되셔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종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식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선하고 합당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나의 완성을 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상이 말하는 제자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종속됨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야 말로 예수님의 제자 됨입니다.

또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알리바이 주장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리바이를 주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또 14장 10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 현장에서 인격적 주체적으로 계셨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악한 일과 연관되는 것을 꺼리며 알리바이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대업이라고 하는 위대하고 멋지고 선한 일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리바이를 주장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들로 공생애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현장에 대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끊임없이 알리바이를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러한 관계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이식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솔로몬 행각으로 데려가서 숭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2절을 보면 베드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고 이어서 16절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순히 심리학적 측면에서 말하는 신뢰나 확신이 아닙니다. 마음이 예수님께 드려져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열을 내며 알리바이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피해야할 범죄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주

장하고 싶어지는 멋진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올라가 있었고 그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일은 자신들의 알리바이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고한 시민이 알리바이가 없어서 피의자로 주목받고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인생이 끝날 위기에 처했으니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제자들의 심정이 이러했습니다. 자신들이 기적을 행한 것처럼 사람들의 오해로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그 일은 좋고 선한 일이고 위대하고 합당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현장에 자신들이 있었음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누명은 억울한 일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선한 일이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누명으로 여겼습니다. 반어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알리바이를 주장하기 위해 늘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동기가 없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알리바이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동기입니다.
누군가 죽으면 그 사람을 살해할 동기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금전적 문제로 인해 가족까지도 용의선상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알리바이가 없음을 주장했고 그러한 일을 할 동기도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 이런 위대한 일을 해야 될 동기가 없고 알리바이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전부 향해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기쁨과 만족을 지향합니다. 불만스러운 상황이나 슬픔을 얻겠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기쁨이 하늘에 있음을 밝힘으로써, 이 땅에서 자신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행동과 말에 동기가 없음을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이 가려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참 놀라운 삶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산이 없습니다. 독립된 자아의 완성을 꾀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과 평생 연합된 삶을 살기를 바랐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 나타나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들의 능력인 것처럼 보였기에 제자들은 알리바이를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좋고 선하고 위대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누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하늘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며 동기와 알리바이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앞부분에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행동에 심히 괴로워하다가 결국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러자 이 귀신들린 여종을 이용해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주인이 화가 나서 이들에게 무고한 죄를 씌워 관청에 고발합니다.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깜짝 놀란 간수들이 도망치는 죄수들을 잡으려고 칼을 빼어들고 달려왔지만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전형적인 제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차꼬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들의 마음이 현장을 빠져나가 하늘을 향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매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이런 이유에서 찬양을 한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귀신을 쫓아냈으니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지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감옥에 넣으신단 말씀입니까? 우리 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통탄하고 원망을 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십자가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서 감옥에 갇힌 상황에 대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마음에서 그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마음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한 것처럼 마음이 하늘에 앉힌바 된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음은 현장을 벗어났고 알리바이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빠져나간 상태에 대해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셨듯이 이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통째로 가진 마음이 되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비록 지하 감옥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갖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향한 하늘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공간이 아니라 차원이라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입니다. 지하 감옥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로 빠져나갔으니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고 주신 것이 감사해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짐으로 인해 기쁘고 만족하여 찬양했습니다. 비로소 그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차꼬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마음의 알리바이를 만들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생각했기에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때문에 괴로워하시며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모든 기적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현장에서도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 계셨고, 현장에서 활약하시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쫓아다녔기에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알리바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음이 삶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로 향함을 통해 알리바이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없습니다. 어쩌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한 일이라도 생기면 그로인해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쳐주고 칭찬해주면 그것을 넙죽넙죽 다 받아들입니다.

이미 공론화 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밝히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베드로나 바울이 명성교회나 순복음교회 같은 대형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큰 교회의 목사로써 우러러보는 것을 제일 무섭고 끔찍한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현장에 대한 자신의 알리바이를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도 열었을 것입니다. 혹은 교회내부에서 세습을 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오히려 멱살을 잡고 반대했을 것입니다. 목회현장에 본인이 없었는데 하물며 본인의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대형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좀 박수라도 쳐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세상에 인정받기만을 갈망하고 있으니 넙죽넙죽 받아들이게 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마음으로는 칭찬에 도취되고 맙니다.

살인 누명을 쓴 심정으로 알리바이를 주장한다면 세습 문제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러한 심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드러나고자 목회한 것이 아닌데 내가 드러나게 되었으니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텐데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오히려 목회는 실패하고만 것입니다. 대형교회의 성도들이 당회장 목사님의 이름을 외치면 외칠수록 목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성도가 다섯 명 밖에 안 되더라도 이들이 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오히려 성공한 목회입니다.

알리바이가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오히려 큰일입니다.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감옥은 몇 년 있으면 나올 수도 있는 곳이지만, 알리바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기 몫으로 슬쩍 챙긴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은 영원한 감옥입니다. 살인자의 누명을 쓴 사람보다도 더한 발버둥을 쳐서라도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에서 희망을 봅니다. 대형교회가 문제라지만 여전히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작은 교회들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면모를 확실하게 갖추는 것이 희망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은 일만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하늘로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으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마음은 하늘에 보내어 삶의 현장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거나 오해를 하거나 대적들에게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마음을 떠나보냈기에 평강은 유지됩니다. 이러한 박해나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리바이가 만들어지고 동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차꼬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싶어 하는 마음의 동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제발 감옥에서 꺼내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감옥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나 가난 질병 혹은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나서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

다.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서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예를 적용하자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러한 현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는 십자가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처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기도를 했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만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는 상황을 돌파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충만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행복하겠고, 저런 일이 벌어져야 만족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상황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절대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감옥이 아닌 영원한 지옥에 보내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신앙의 맛이 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차꼬가 풀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차꼬를 푸셨으니 이들이 도망간다고 해서 탓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다시 잡혀 들어오게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합법적으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닌 이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빠져나가야 할 동기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현장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사님이라면 교인이 세 명이라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세 명의 교인에게 하나님을 가지게 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던 중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의 능력을 추켜세우더라도 그 마음은 성도가 세 명일 때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이 기적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차꼬가 풀렸는데도 여전히 머물러 있던 바울과 실라의 심정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거기 앉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간수마저도 구원시키시고 합법적으로 이들을 풀려나게 하셔서 다음 전도지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런 감옥과 같은 환경에 놓여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탈출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 대한 동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하늘로 갈 것이다. 내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또 구름이 멈추면 한 달이고 일 년이고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감옥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한 달이고 십 년이고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알리바이를 위해서, 동기가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6~18절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귀신들린 여종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닌데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돈 주고 광고를 해도 부족할 판에 귀신마저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전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들린 여종이 불쌍해서 귀신을 쫓은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괴로워서 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말이 괴로워서 여종을 불쌍히 여길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알리바이를 만들고 동기가 없는 자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을까요? 귀신의 선전을 인정하는 순간 바울과 실라의 알리바이가 부인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귀신이 참 교활하게 행동한 셈입니다.
예를 들어 강릉의 수돗물은 태백산맥에 자리 잡은 오봉댐이 수원지가 됩니다. 말만 들어도 좋은 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릉 시민 16만 명 그 누구도 수돗물을 쓰면서 오봉댐의 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니 결국은 수돗물입니다.
귀신의 교활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돗물처럼 여기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수원지와 상관없이 다 수돗물이 되어버리듯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종이 더 부각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에 바울은 마치 살인 누명을 쓴 것 같은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즉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음이 바로 스스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동기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까지 다 이미 계획이 있으셨고, 바울과 실라는 그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기에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알리바이와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알리바이가 부정되는 상황에 처하자 극심하게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화가 나타납니다. 8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의 루

스드라에 갔을 때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바울은 이 사람을 걷게 합니다. 이때에 그곳에 있던 헬라 사람들이 이들을 신으로 여겨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불렀습니다.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입니다. 말씀을 주로 바울이 전했으므로 헤르메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치며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또 다시 일어날 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물이 수돗물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결코 오봉댐을 생각하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바울은 16~18절에서 다소 특이한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풀려난 뒤에 자신이 로마시민임을 밝힌 것과도 연결됩니다.
애초에 로마시민임을 밝혔으면 끌려가 맞을 이유도 없었고 감옥에 갇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침묵하다가 모든 일이 끝나고 풀려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로마시민임을 밝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의 출신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배척했습니다. 이때에 자신이 로마출신이라는 것을 밝혔다면 그로 인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자신이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리바이를 잃는 것을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고행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자신의 모습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초대형교회의 당회장 목사님들 자리에 있었다면 노숙자 생활이라도 하려고 자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라면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가난하고 어렵다면 그로인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라도 많이 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문이 아닌 돈 때문에 나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녀 때문에 나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시민임을 감춘 것처럼 알리바이를 증명해나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서울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걸 감추려니 입이 간지러워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십니다. 이럴 때에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개선시키려는 동기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은 항상 하늘로써 기뻐하는 알리바이를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칠십인 제자를 파송시키신 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때에도 이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현장에서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시고 20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이 땅에서 기쁨을 얻으려는 동기가 있었고, 그로인해 알리바이를 잃게 되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늘로 보냄을 통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기쁨을 찾지 않음을 통해 동기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설령 당장 이러한 믿음이 없더라도 이것을 믿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못 박히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고, 온 몸은 채찍에 맞아 찢어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나에게 오버랩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떻든 돈이 있든 없든 병이 들었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마음을 하늘로 보내어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산해서 이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를 하든지 다윗처럼 왕이 되든지 바울에게서처럼 기적이 일어나든지 감옥엘 가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알리바이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은 유지됩니다. 또 이 알리바이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땅에 대한 동기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동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대하는 순간에 나는 마음을 하늘로 보냈다는 알리바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늘에서 기쁨을 얻기에 새삼스레 배우자에게 기쁨을 추구할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나오는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조차도 나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동기에 의한 것이 됩니다. 아내를 만나는 동안에 남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 동안에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리바이를 만들고 동기 없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살인 누명을 썼을 때에 알리바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답답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이 세상

에 대해 알리바이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할 동기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은 십자가 생활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를 오버랩하게 하셔서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알리바이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으로 기뻐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마음의 동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만의 현장이고 하나님만의 동기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